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우리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 성전스님 -

이사장 돈관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도자기 ‘설중매’ 기증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이 설봉스님의 장인 정신과 예술혼이 깃든 도자기 ‘설중매’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증했다.
‘설중매’는 한 겨울에 향기롭게 피어나는 매화의 인연공덕을 표현한 작품으로 환우들의 건강과 쾌유, 그리고 항상 곁에 계시는 분들의 행복과 평화를 축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사장 돈관스님의 뜻에 따라 지난 8월 9일 ‘설중매’를 병원 1층 로비에 설치하였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이 작품이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치유의 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륜스님,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에 1천만 원 기부

법륜스님이 지난 8월 5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의료 장비구입에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법륜스님은 “내년 개원 20주년을 앞두고 최첨단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되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이 자비의료 실천의 약사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법륜스님은 청정 수행을 이어가는 비구니 스님으로, 작은 사찰을 운영하며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병원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2분기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 교직원상’ 시상, 순금 배지를 부상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9일에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 교직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상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친절한 태도로 환자들에게 추천받은 교직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시상에서는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 안과 오종현 교수, 병동간호2팀 101병동 조효순 간호사, 동서의학건진센터 조임새 간호사가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순금 배지가 전달됐다.
권범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칭찬 글뿐 아니라 환자경험평가 등 환자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하여 선발하는 시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금처럼 환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교직원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간호부, ‘갑자기 설레임’ 깜짝 응원 이벤트로 직원들 격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 간호관리자들이 지난 7월 31일 더운 여름 환자 돌봄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특별한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병원 5층에서 열린 ‘갑자기 설레임’ 아이스크림 부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미화직원 등 약 500여 명의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호관리자들은 직접 아이스크림을 담아 나누어 주며, ‘환자들과 병원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은 잘했고,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할 것입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복날 맞이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 이기기’ 이벤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14일 중복을 맞아 야외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수박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이벤트는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시설, 보안, 미화, 주차, 급식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기획한 사무국은 “올여름 직원들이 더위에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재)법보선원/인천용화선원에서 기부한 공양미로 환자 및 교직원에게 따뜻한 식사와 떡 제공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재)법보선원/인천용화선원에서 보시받은 20kg 쌀(공양미) 50포대로 환자 및 교직원에게 따뜻한 밥과 떡으로 공양을 제공했다. 이번 공양은 (재)법보선원/인천용화선원의 귀한 보시로 이루어졌으며, 병원 내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공양미로 마련된 식사를 통해 환자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재)법보선원/인천용화선원의 귀한 기부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